



# 민족의 명산 (4)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에 명승지가 많지만 특히 금강산은 천하의 절승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동해안중부 태백산줄기의 북부에 있는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걸쳐 남북의 길이 60km, 동서의 길이 40km, 면적 530km<sup>2</sup>의 광대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금강산은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특남처럼 늘어진 1만 2천봉우리와 기암들, 층암

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수많은 담소와 못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구슬같이 맑은 물,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져내리는 폭포들, 다양한 동식물상과 특유 등이 잘 어울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산악미,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 갖추고 있어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온갖 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봄날의 금

강산을 아름다운 보석에 비겨야 무 또한 기록하니 천하절승이 여기다 모인것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지혜와 예술적재능을 다 바쳐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신계사, 정양사를 비롯한 사찰들과 불상조각들, 탑, 비, 부도를 비롯한 문화재들을 창조하였으며 전설과 시, 노래, 회화작품들을 수없이 남겼다. 오늘 금강산은 절세위인들의 온정 속에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져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특색있고 다양한 산업미술분야

공화국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최후대인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식, 우리 힘,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전문가들과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수백점의 각종 도안들과 실례제품, 모형 등이 출품되었다. 최성우 중앙산업미술국 부원은 《전시회에 출품된 모든 산업미술 도안들이 종전의 컴퓨터 화상처리에 의한 도안과는 달리 창작자들이 펜화, 스케치, 담채화와 같은 화법을 리용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내용은 특색 있는 도안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번 전시회가 창작자들이 컴퓨터에서만 느기던 조형 감각, 형태감각 등을 실지 창작활동을 통해 다지고 도안을 그림으로 그리고 과정을 통하여 기초실기능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강원도산업미술국의 윤영수창작가가 그린 《대형화물자동차》도안과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황은철창작가가 내놓은 《굴착기》도안은 기발한 착상력과 구성력으로 현실에서 은을 벌수 있게 창작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많은 도안들중에서도 라선시산업미술국의 김광일창작가가 창작한 《자체적제화물자동차》, 《탄능트랙도》도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창작한 도안들은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야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보다 더 특색있는것은 붉은별원구소의 홍진창작가가 그린 《공기주입식 유탄기》도안이었다. 이 도안은 임의의 장소와 공간을 리용하여 공기

# 조선의 국가 상징 소나무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소나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소나무는 조선의 그 어느 숲에서나 볼수 있었으며 숲은 특유한 정서를 자아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잘 그려야 명화라고 일러왔다. 새들도 날아들다가 부딪쳐 떨어지게 했다는 이름난 화가 솔거가 그렸던 그림속의 나무도 바로 소나무였다.

조선에는 소나무에 대한 우리의 민족의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집중적으로 느낄수 있는 한 고장이 있는데 옛적에는 송도라고 불리운 오늘날의 개성시이다. 개성시에 있는 산의 이름도 소나무와 결부시켜 송악산이라 이름지었다.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것은 우리 민족의 역센 기상, 녀과 의지, 숨결이 소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그대로 비껴 있었기때문이었다. 엄혹한 겨울에도 찬바람을 깨끗이 이겨내며 흰눈을 띠고 서있는 소나무의 억세고도 푸르른 모습에 우리 민족은 자기의 굳센 의지와 기개를 부여하여왔던것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기간 소나무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것으로 하여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애착과 자랑이 그처럼 열렬한것이다. 본사기자



# 《쇠도리깨다!》 (4)

글 리빈, 그림 김윤일

필도의 집에서 기쁜웃음이 들이온 노술은 이날 하루종일 울적한 마음으로 밀마당질을 하였다. 땅거미가 질어갈즈음 우물가에서 남편에게 목물을 엮어주던 무던이가 격정스레 물었다. 《이봐요, 오늘은 왜 그리 말이 없어요? 무슨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는가요? 내가 알아서는 안될 일이 아니라는 건 좀...》 안개가 부어주는 드레박물이 엮드린 잔등에 쏟아질 때마다 《어푸! 어푸!》 하고 가쁜숨을 불어쉬며 노술이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결단코... 해야 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요. 이랬던지냈던 아버님께서... 도리깨를 왜놈을 잡았지, 어머니님과 당신도... 도리깨를 들구 달러드니 놈들은... 도망들 찾지. 하기에 난 도리깨를 든드러 고쳐만들기만 하면 왜놈잡이 병장기로 쓸수 있다는... 얼마나 보이기에...》 라고 여기까지 속마음을 터보이니 노술은 숨을 한번 크게 쉰고나서 오늘 아침 필도와 나는 이야기를 안해에게 말씀 옮기었다.

남편의 말을 다 듣고난 안해는 곧 신심이 있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 생각이 옳은것같아요. 필도아저씨 장수가 아니고는 못한다고 마다했다지만 어부였던 아버님 도리깨에 왜놈이 죽지 않았나요. 이젠 벌써 도리깨가 병장기로 쓸모가 있다는게 아니겠나요. 하긴 아버님께 도리깨질솜씨가 없었더라면 일은 글러졌을테지만... 우리 한판사람들이 지 때려부실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손에 들 병기가 없어 애래우는 생각을 하면 부지깅이라도 들고나서야 할판인데. 뭐 허칠은 앓았지만 방도를 찾으실수 있을거예요. 이고말고요. 가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말허리를 끊은 무던이는 남편의 팔목을 끌었다. 《이제 빨리 가서 아버님과 의논해보자요. 아버님이요. 궁양이 넓으신분이기도 하지만 왜놈잡은 경험은 가졌으니 필정 좋은 말씀을 해주실거예요. 어서 가자요!》

## 협분의 자옥을 남긴 지사들

1909년 10월 26일은 반일 애국열사 안중근이 일제의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이다. 1879년 9월 21일에 출생한 안중근은 일찍부터 선조들의 애국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역사와 군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자기 집채산을 팔아 무기로 구입하고 지방소년들로 《항군회》를 조직하여 군사훈련도 하였다. 1905년에 상해에 가서 애국활동을 벌리다가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일시 귀국한 그는 1906년 삼파부(평안남도

## 안중근



통강군)로 이사하여 삼흥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07년부터 애국문화운동체인 《서우학회》 회원이 된 그는 삼화지회를 내세우며 국제보상운동이 벌어지자 애국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하고 조선군대까지 강제해산시키며 격분한 그는 통강일대에서 의병을 조직하려다가 탄로되어 1907년말 러시아의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안중근은 《단치동맹》을 맺고 망명자들로 반일의 병대를 조직하여 참모총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부대와 함께 1909년 6월 언덕에 진격하여 일제침략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회령에서 전투가 실패한 후 그는 조선침략에 앞장선 일본의 고위급반동정권자들을 처단할것을 결심하고 그 첫 대상을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도 히로부미로 정하였다. 그해 10월 이도가 만주침략문제를 둘러싸고 할빈에 온다는것을 알게 된 안중근은 그 기회에 이도를 처단할 결심에 뜻을 같이하는 무덕순, 조도선 등과 면밀한 계획을 짰다. 조도선, 무덕순이 책임진 조가 채가구역에서 이도를 처단할 계획이 실패하자 혼자서 할빈을 담당하던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삼압한 감시망을 뚫고 홀로 나갔다. 아침 9시 이도가 할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권총으로 이도 히로부미를 사살한 다음 일제의 가와시마역사, 모리시기관, 다나카만철리사장을 차례로 쏘아눕히었

으며 《조선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일제군에게 체포된 안중근은 러순감옥에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적정신을 지켰으며 옥중에서 조국산천이 귀중하다는 뜻을 담아 《제일강산》이란 글을 썼다. 일제는 1910년 2월 14일 형식적인 재판놀음을 벌려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3월에는 그를 교수형에 처하여 학살하였다. 안중근의 희생적인 투쟁은 조선민족은 결코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외래침략자들과는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용감한 민족이라는것을 보여준 애국적장자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조희승

## 새책소개 《빛과 생》

평양출판사에서 도서 《빛과 생》(저자 한영수)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빛을 찾아 방향하던 작가 김사량이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펼쳐 보이고있다. 김사량의 작품의 원천은 빛과 어둠이었다. 김사량은 생명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빛을 찾아 방향하고 빛을 그리던 나에게 그 빛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생도 없었을것이다.》 김사량이 그토록 갈망하고 마침내 받아안았던 그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따스롭고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었다. 그는 처녀작인 《토성왕》, 《빛속》이라는 소설들에서 하늘중천의 해가 아무리 빛을 주어도 가난과 문맹, 학대와 억압속에서 벗어나지